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초점)-정말 푸틴을 전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 ◇ (초점)-신임 한은 총재 취임 지연에 커지는 '초보자 리스크'..4월 금통위 향방은?
 - ◇ (초점)-달러 유동성 리스크 떨어진 FX 스왑..한미 금리차·크로스 수급 관건
 - ◇ (초점)-상장사 외국인 배당 작년 대비 급감..이미 타이트한 외환수급엔 부담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19 확산세가 관심을 끄는 가운데 이 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상하이의 한 구역에서 장벽 너머로 배달원이 음식을 전달하고 있다. (로이터/알리 송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3월25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1,218.8	-0.9%	-2.5%	-8.6%	유로	1.0983	-0.7%	-3.4%	-6.9%
100엔 대비	1,003.8	1.2%	2.9%	+1.8%	엔	122.08	-2.4%	-5.7%	-10.3%
유로 대비	1,345.8	-0.5%	0.4%	-1.9%	위안	6.3663	-0.1%	-0.2%	+2.7%
위안 대비	192.48	-1.1%	-2.8%	-11.1%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다우존스	34,861.24	0.3%	-4.1%	+18.7%
코스피	2,729.98	0.8%	-8.3%	+3.6%	나스닥	14,169.30	2.0%	-9.4%	+21.4%
코스닥	934.69	1.3%	-9.6%	+6.8%	S&P500	4,543.06	1.8%	-4.7%	+26.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MSCI APxJP	582.81	-0.1%	-7.5%	-4.9%
국고채 3Y	2.505%	27.4bp	70.7bp	+82.2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국고채 5Y	2.713%	21.8bp	70.2bp	+67.6bp	미국채 2Y	2.280%	34.0bp	155.0bp	+61.0bp
국고채 10Y	2.871%	13.4bp	62.1bp	+53.7bp	미국채 10Y	2.490%	34.0bp	98.0bp	+59.5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1(%)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1(bp)
유가(WTI)	112.60	7.1%	49.2%	+55.8%	한국 5Y	29.2bp	0.0bp	7.2bp	-0.7bp
금(현물)	1,958.40	1.9%	7.1%	-3.6%	일본 5Y	19.2bp	0.5bp	1.6bp	+2.1bp
TR상품지수	3,867.93	1.6%	15.8%	+24.6%	중국 5Y	61.5bp	7.9bp	20.3bp	+12.1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국내 주요 주간 일정

<3월 28일(월)>

- 한은, 「지역경제보고서」 (3월)(12:00)

<29일(화)>

- 기재부,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결과보고서 발표(06:00)
- 한은,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06:00)

<30일(수)>

- 한은, 조사통계월보 논고: 국내 주요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리스크 요인 평가(12:00)
- 한은, 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12:00)
- 금감원, 2021년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12:00)

<31일(목)>

- 한은,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06:00)
- 기재부, 부총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07:30)
- 통계청, 2월 산업활동동향(08:00)
- 한은, 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12:00)
- 한은, 「2021년도 연차보고서」 정부 제출 및 공표(12:00)
- 기재부, 국채백서 「국채 2021」 발간(15:30)
- 한은, 2021년 4분기중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16:00)
- 기재부,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3월 발행실적(17:00)

<4월 1일(금)>

- 산업부, 3월 수출입 동향(09:00)

<4월 2일(토)>

- 기재부,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회의 결과(09: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3월 28일(월)>

- 미국 2월 도·소매재고 (21:30)
- 미국 3월 달러스 연은 제조업 경기지수 (23:30)

<29일(화)>

- 일본 2월 실업률 (08:30)
- BOJ, 3월 17-18일 통화정책회의 주요의견 공개(08:50)
- 미국 1월 케이스실러·FHFA 주택가격 (22:00)
- 미국 3월 소비자신뢰지수 (23:00)

<30일(수)>

- 일본 2월 소매판매 (08:50)
- 유로존 3월 소비자신뢰지수 최종치·경기체감지수·기업환경지수 (18: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3월 ADP 전국고용동향 (21:15)
- 미국 4분기 GDP 최종치·기업이익 수정치 (21:30)

<31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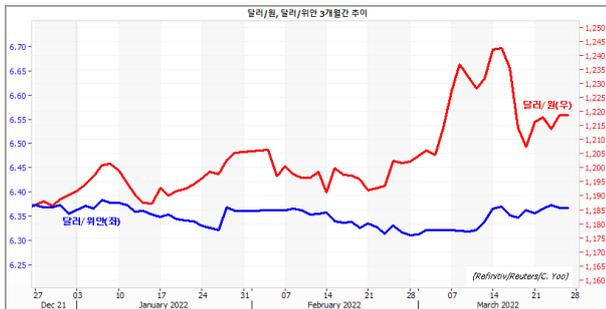
- 일본 2월 산업생산 잠정치 (08:50)
- 중국 3월 NBS 제조업·서비스업 PMI (10:30)
- 일본 2월 주택착공·건축주문 (14:00)
- 유로존 2월 실업률 (18:00)
- 미국 3월 찰리저해고건수 (20: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미국 2월 근원 PCE 물가지수·개인소득 (21:30)
- 미국 3월 시카고 PMI (22:45)

<4월 1일(금)>

- 일본 1분기 단칸 대형 제조업지수 (08:50)
- 일본 3월 외환보유고 (08:50)
- 일본 3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최종 (09:30)
- 중국 3월 차이신 제조업 PMI 최종 (10:45)
- 유로존 3월 CPI (18:00)
- 미국 3월 실업률·비농업부문 취업자수 (21:30)
- 미국 3월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PMI (23:00)
- 미국 2월 건설지출 (23:0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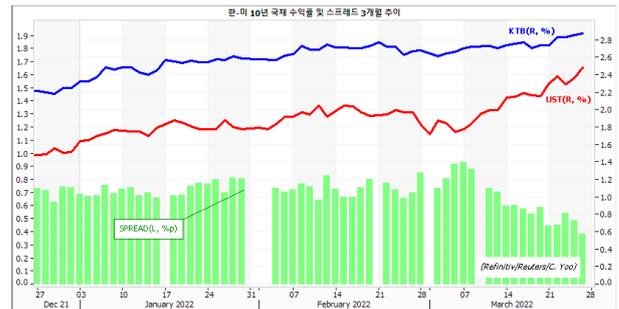
<외환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고유가 장기화와 미국 긴축 가속 부담 속에 월말 수급에 따른 변동성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210-1235 원이다.
- 우크라이나 사태가 단기간 내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유가는 배럴당 100 달러대에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 여기에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인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50bp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고 미국 국채 금리는 계속 전진해 2019년 이후 최고치로 경총 뛰어올랐다.
-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감행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지정학적 불안에 예민해진 상황에서 원화의 입지는 좁아졌다.
- 이번 주는 연준이 주목하는 물가 지표인 2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와 3월 고용지표가 크게 조명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와 제조업 지표,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 반응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 한편 분기 말 마지막 주간으로 통상 이런저런 수급이 활발하게 소화되는 만큼 환율은 틈틈이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겠다. 과거와 달리 분기 말에 일방적으로 달러 공급 우위 장세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어 환율의 양방향 수급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주요 국내 지표로는 2월 산업생산과 3월 수출입 잠정치, 작년 4분기 외환시장 개입 내역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채권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권시장의 '피바다'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르면 5월에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는 '빅 스텝'을 단행할 수 있다고 밝힌 이후 미국 국채금리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선 현재 연준에서 가장 매파적인 볼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뿐 아니라 그동안 비둘기 스탠스를 보였던 다른 연준 인사들도 비슷한 입장을 보인다.
- 하지만 주요 IB에서 나오는 전망들은 너무 무시무시해서 놀라울 정도다. 씨티는 연준이 올해 4회 가량의 50bp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고 BofA는 6월과 7월 50bp 인상과 내년 5월 3~3.5% 정책금리를, 골드만삭스는 5월과 6월 두 번의 50bp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 이런 예상대로라면 연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의 정상화에 나서는 것이다. 유동성의 힘에 지탱돼 온 글로벌 금융시장이 그 정도 긴축을 맞는다면 결과는 뻔하다.
- 연준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제어하기 위해 강력한 매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는 있지만 과잉 긴축에 따른 후폭풍을 간과할 수 있을까? 현재 시장의 반응은 통화당국의 행보에 대한 시장의 경고로 보는 게 맞아 보인다.
- 이번 주말 미국 고용지표 발표가 중요하다. 고용지표가 현재 시장의 금리인상 반영 속도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국내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선 속이 탈 수밖에 없다. 다만 어느 정도 수준부터는 미국 국채금리 움직임에 둔감해질 수는 있다.
- 과도한 긴축에 대한 부담은 장기금리를 누르는 요인이다. 추경 이슈와 무관하게 장기물이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 정권인수위원회와 현 정권 간에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두고 합의가 이뤄질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점)-정말 푸틴을 전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3월 23일 (로이터)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전쟁범죄자라 칭한 가운데 푸틴 대통령을 국제 법정에 세우는 일이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과 다른 러시아 지도자들을 실제로 기소하기까지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 러시아는 이번 군사 활동을 '특별군사작전'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점령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전쟁범죄 정의는?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전쟁범죄를 2차 세계대전 이후 마련된 제네바협약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협약에는 전쟁 중 따라야 할 국제 인도법이 제시돼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목표로 삼아 공격하고, 민간 사상자가 "대규모" 발생할 수 있는 군사 목표물을 공격하는 것은 조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구소련은 1954년 제네바협약을 비준했다.

◆ 기소할 수 있을까?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이달 우크라이나 내 전쟁범죄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는 ICC 회원국이 아니며, 러시아 정부는 ICC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러시아가 ICC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체포될 때까지 재판은 열릴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물론, 레베카 헤밀턴 아메리카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그렇다고 해서 ICC가 기소를 추진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역시 ICC 회원국이 아니지만,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크림반도) 합병 당시 자국 영토에서 발생한 잔학행위에 대한 조사를 승인한 바 있다.

◆ 전쟁범죄 입증 기준은?

ICC는 전쟁범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검찰 측이 제시할 수 있다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이다.

일단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유죄 판결을 얻어내려면 검찰 측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가 남는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 의도성을 입증해야 한다. 공격 지점에 군사 목표물이 없었고 그 공격이 우발적 사고가 아니었다고 증명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하버드 로스쿨의 알렉스 위팅 객원 교수는 "(공격이) 계속 반복되고 그 전략이 도시 지역의 민간인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는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기소 대상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쟁범죄 조사는 군인, 지휘관, 국가 원수를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 측은 푸틴이나 다른 국가 지도자가 불법적인 공격을 직접 지시해 전쟁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빈대학교의 아스트리드 레이싱어 코라치니 국제법학과 강사는 현장에서 발생한 범죄 행위가 러시아 고위 지도자들에 의해 지시됐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고위급 인사를 상대할수록 범죄 행위와 연결시키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유죄 판결은 가능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의 산부인과 병원과 극장에 대한 폭격은 전쟁범죄 정의에 해당 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 일은 역시 쉽지 않을 수 있다.

혐의와 관련한 의도를 입증하고 특정 공격과 지도 부를 직접 연결시키는 문제 외에도, 검사 측이 증거 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일례로 목격자들은 두려움 등을 이유로 증언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피고인들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 러시아는 체포 영장에 응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며, 이에 ICC 는 피의자들이 체포가 가능한 국가로 이동하는지를 추적해야 할 것이다.

◆ 선례가 있나?

ICC 웹사이트에 따르면 ICC 는 설립 이후 30 건의 사건을 다뤘으며, 이 중 일부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여러 명이였다.

ICC 판사들은 전쟁범죄, 반인륜범죄, 대량학살 혐 의로 5 명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4 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우간다 '신의 저항군' 지도자인 조셉 코니를 포 함한 몇몇 피고인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적도 있다.

유엔이 1993 년 발칸 전쟁 중 발생한 범죄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설립한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 판소의 경우 161 건의 기소장을 발부하고 90 명에 게 형을 선고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내 전쟁범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유엔이나 조약을 통해 별도의 재판 소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초점)-신임 한은 총재 취임 지연에 커지는 '초보자 리스크'..4 월 금통위 향방은?

서울, 3 월 24 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내달 14 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신임 한국은행 총재 가 참석할 수 있을지에 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지명자가 4 월 금통위 회의 전에 정식 취임해 기자간담회를 맡든 금통위원 중 한 명이 대신 나서든 '초보자 리스크'로 통화정책 커 뮤니케이션에 오류가 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 촉박한 청문회 일정과 '초보자의 실수' 가능성

한은은 주상영 위원이 금통위 의장 직무대행 위원 으로 결정됐다고 24 일 밝혔다. 의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위원은 금통위 회의 때 한국은행 총재 부재 시 의장 역할을 대신 수행하게 된다.

한은은 다만 4 월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서 기자간담 회를 주재할 금통위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전날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한은 총재로 지명했지만,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신임 총재가 4 월 회의에 참석할지는 불확실하다.

한은 총재 후보 지명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 기까지 20 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이 창용 지명자가 내달 14 일 열리는 금통위 회의에 참 석하는 건 일정상 빠듯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창용 지명자가 다음 달 금통위 회의에 예정대로 참석해 기자간담회까지 주재한다 해도 리스크는 남 는다. 촉박한 일정 속에 청문회를 마치고 금통위 기 자간담회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통화정책 커뮤니케 이션에서 실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통화당국 수장 교체 시기에 나타나는 커뮤니케이션 실책 논란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재닛 옐런 연방준 비제도 의장 역시 취임 초기였던 2014 년 3 월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 서 금리 인상 시점이 "양적 완화 종료 후 대략 6 개 월 정도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해 시장을 충격에 빠 트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져 온 초저금리 기초를 되돌리려는 옐런 의장의 작심 발언 아니냐는 해석 이 나오며 전 세계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고 옐런 의장은 바로 다음 달 외부 연설을 통해 "초저금리 정

책이 상당 기간 필요하다"며 자신이 한 말을 주워담아야 했다. 결국, 해당 에피소드는 '초보자의 말실수'로 최종적인 평가를 받게 됐다.

이주열 총재 역시 첫 번째 임기 초반 호기롭게 기준금리 인상 의사를 밝혔다가 얼마 후 자산의 발언을 스스로 되돌리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최초로 연임에 성공한 이 총재가 이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세세하게 조정하며 시장과의 소통에 집중한 것도 이같은 경험이 밑바탕이 된 것이다.

▲직무대행 금통위원이 나선다면?

이창용 지명자가 4월 금통위 회의까지 취임하지 못할 경우에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금통위원 중 한 명이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 의장 겸 한은 총재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데, 이 역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금통위원으로서 개인의 소신을 발표하는 것과 금통위 의장이자 한은 총재로서 기자간담회에 설 때 발언의 경중(輕重)이 다른 만큼 커뮤니케이션에 왜곡이 나타날 경우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통화정책의 연속성과 커뮤니케이션 부담을 감안할 때 금통위 의장 직무대행 위원보다는 한은 부총재가 기자간담회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물론 이창용 지명자가 4월 금통위 기자간담회에 나서든 다른 금통위원이 나서든 큰 문제는 없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내외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금통위 내부에서 현재 5월 기준금리 인상 기류가 거의 굳어진 만큼 4월 기자간담회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하든 대세에 영향이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4월 금통위 회의 때 5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기대한다면 기자간담회 발언 자체보다는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청문회 기간 총재 지명자가 현안을 정리할 시간을 충분히 가질 것이고 워낙 전문적인 식견이 있으신 분이기에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는다"며 "통화정책과 관련해 4월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통위원들이 그동안 자율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해 왔기 때문에 총재 한 사람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은 소수의견 등을 통해 전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의 다른 관계자는 "만약 금통위원이 4월 기자간담회에 나설 경우 제일 잘할 만한 사람을 내세울 것으로 본다"며 "초보자의 실수 가능성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누가 하든 어쩔 수 없는 '처음'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리스크를 조정해 나갈 수밖에 없을 듯하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4월 기자간담회에서 단순히 5월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한 시그널뿐 아니라 현재 통화정책 사이클의 지속 기간, 최종 기준금리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민감한 이슈 등이 논의될 수 있는 만큼 '초보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계 은행의 한 트레이딩 헤드는 "한은 총재가 교체된다고 해도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이 두 번에서 세 번 정도일 것이라는 기존 한은 집행부의 입장이 반복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누가 나오든 초보자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언의 미묘한 뉘앙스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혼란에 대해 제대로 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초점)-달러 유동성 리스크 털어낸 FX 스왑..한미 금리차·크로스 수급 관건

서울, 3월 25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러시아는 이번 군사조치를 특별군사활동이라 지칭하고 있음)에 따른 지정학적 우려로 흔들리던 FX 스왑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과 함께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FX 스왑포인트가 상승 압력을 받는 건 분기

말을 앞두고 과도했던 달러 유동성 우려가 빠르게 해소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달러 유동성 리스크 털어낸 FX 스왑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 8분 현재 1년 만기 FX 스왑포인트는 전날보다 0.20원 상승한 -6.70원에 거래되고 있다. 6개월물은 전거래일보다 0.30원 오른 -1.50원에 거래됐다.

1개월물은 전장보다 0.10원 상승한 0.60원에 거래되고 있다.

FX 스왑시장은 이달 초만 해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라는 재료 앞에 크게 흔들렸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금융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에 디레버리징 연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며 FX 스왑포인트가 급격히 눌린 것이다.

특히 러시아 자산과 연계된 펀드의 자금 회수 압박이 커질 경우 전세계 금융시장에 달러 조달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이 가장 큰 '목 안의 가시'였다. 여기에 국내은행을 중심으로 분기말 달러 확보 경쟁이 가시화되면서 외화자금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산 가능성이 낮아진 가운데 러시아 정부가 디폴트를 막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달러 유동성 우려는 빠르게 가라앉았다.

달러 유동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 감소는 스왑베이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난 9일 각각 -92bp, -86bp까지 벌어졌던 1년, 3년 스왑베이스 역전폭은 24일 -68bp, -52bp로 줄어들었다.

결국 월말까지 외화자금시장에 이렇다 할 발작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분기말 자금 이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달러를 쥘어놓았던 은행들이 안도감을 느끼는 상황이다. 그 결과 FX 스왑 초단기물 가격이 상승하고 단기 구간이 빠르게 안정을 찾게 된 것이다.

달러/원 환율이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외화자금시장은 이미 지정학 리스크 관련 프라이싱을 대부분 되돌려놓는 분위기라는 게 시장참가자들의 진단이다.

▲ 크로스 시장이 FX 스왑 캐리..한미 금리차도 변수

시장참가자들은 달러 유동성 경색이라는 '테일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털어낸 만큼 향후 FX 스왑포인트의 향방은 한미 금리차 축소 속도와 통화스왑(CRS) 시장의 수급에 달린 것으로 본다.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 제어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50bp '빅스텝' 금리인상 가능성이 현실화된 만큼, 1년 FX 스왑포인트 등 장기 구간이 상대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데 해선 이견이 없다.

다만 분기말을 앞두고도 자산스왑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연이은 부채스왑과 재정거래 관련 비드로 요동치고 있는 CRS 금리의 향방이 FX 스왑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A 국내은행 운용팀장은 "베이스스가 이미 2월 평균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스왑시장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를 극복하지 못한 건 달러/원 환율 뿐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FX 스왑이나 크로스 시장의 움직임에는 미국 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향후 FX 스왑포인트 역시 한미 금리차 이슈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 외국계은행 트레이딩헤드는 "달러 금리 상승 속도를 감안하면 1년 FX 스왑포인트는 더 빠지는 게 정상으로 보이는데 분기말을 앞두고 다들 너무 대비를 잘 해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탄탄하게 버티는 것"이라며 "특히 크로스 시장에 쏠이 걸리면서 금리가 급등한 것을 FX 스왑이 쫓아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12영업일 동안 3년 크로스 금리가 60bp 가까이 올랐는데 자산스왑 없이 부채스왑이 계속된 데다 유로/원 포워드 바이, 달러/원 포워드 바이에 재정거래까지 나오면서 리시브가 완전히 당했다"며 "아직 대기 중인 부채스왑이 꺾이는 상황인데 앞으로 FX 스왑 움직임 역시 단기 크로스 시장에 좀 더 연계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초점)-상장사 외국인 배당 작년 대비 급감..이미 타이트한 외환수급엔 부담

서울, 3월 22일 (로이터) 이지훈·박예나 기자 - 글로벌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와 지정학적 위험이 달러/원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국내 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시즌이 돌아와 외환시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로이터가 국내 주요 상장기업 중 외국인 주주에 대한 배당 지급 예상 규모가 일정 수준(1천억원)을 넘어서는 곳을 조사한 결과, 최대 약 6.9조원 규모의 역송금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로이터가 작년 추산한 규모(11.6조원)보다 40% 줄어든 수준으로 지난해 삼성전자가 지급한 일회성 특별 배당 약 6조원이 빠진 것이 감소액의 거의 전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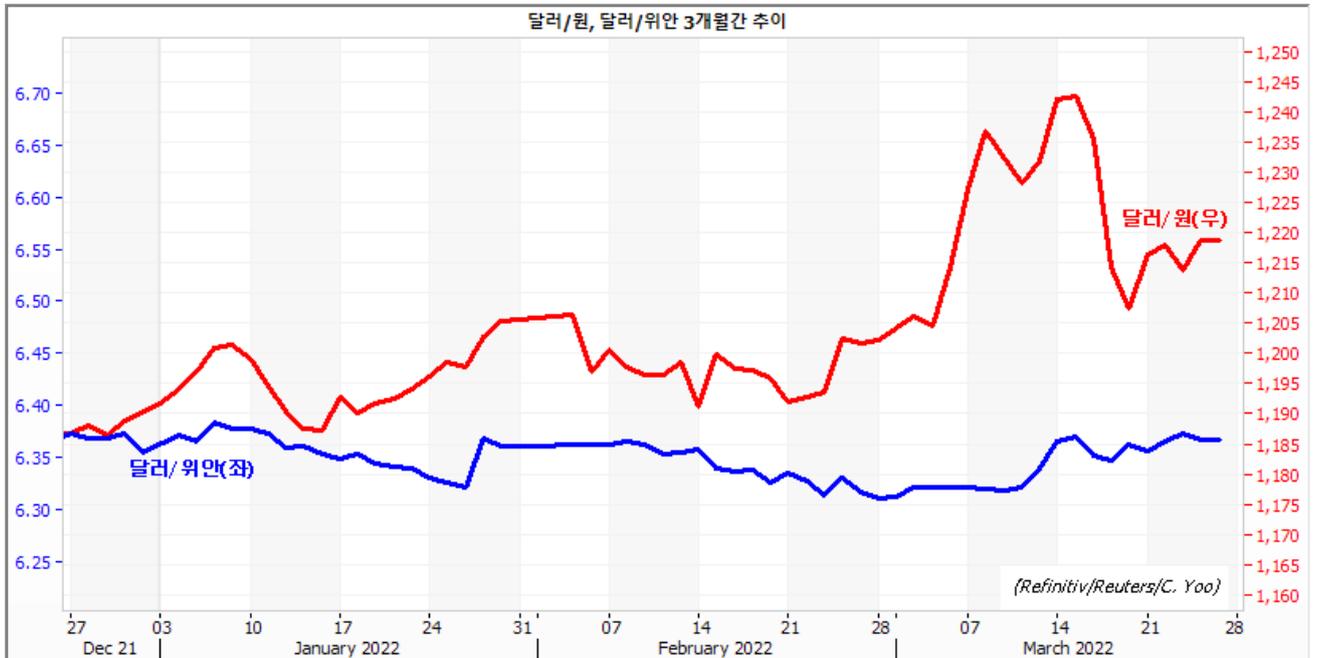
한국은행 국제수지 자료에 따르면 작년 4월 본원소득 내 투자소득 배당 지급 규모는 약 75억달러였다. 물론 내국인의 해외투자 확대에 의한 배당소득 증가로 투자소득수지는 38억달러 상당 적자에 그쳤다. 한편 지난해 4월 경상수지는 적자를 겨우 면한 채 1.8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작년에 비해 외국인 배당액은 줄었지만, 통화 긴축과 지정학적 불안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고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 확대와 이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로 외환 수급 여건은 매우 타이트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주식 투자자 역송금 수급은 이전보다 영향력이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